

시각자료 중심의 대중용 교양한국사

웅진출판 펴냄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

그림과 도표, 기록사진 등 다양하고 풍부한 시각자료를 동원한 현대적 감각의 한국사가 새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소장 이이화)의 젊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하여 펴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웅진출판사)가 그것. '원시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고려에서 조선후기까지' '개항에서 해방까지' 등 전3권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읽는' 역사책에서 '보는' 역사책의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왕의 역사책들에 대해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부분적으로 넓힐 수는 있었지만 역사 전체에 대한 역사상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서술이 난해하거나 지나치게 사실나열 위주여서 무미건조하고 지루했으며 비록 그 내용이 쉽더라도 주제 중심의 서술이 아니고 시각자료가 부족"하였다고 비판하는 이이화씨는 머리말에서 "이 책이 우리의 역사를 인과적으로 파악하여 현재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한국사에 대한 이미지를 세우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의 서술체계는 기존의 통사류와는 다르게 짜여져 있다. 각권의 맨앞에 각각의 시대개관을 수록한 다음 주제 중심으로 장을 나누어 우리 역사의 흐름을 개괄하고 있다. 각 장은 다시 여러 개의 절로 나뉘는데, 각 절의 주제와 내용을 집약하는 현대적 감각



의 세련된 제목들이 특히 독자들의 눈길을 끈다. 가령 신라의 삼국통일에 관한 절을 보면 '낙화암의 비운, 무너지는 평양성'이란 제목으로 나당연합군에 의한 백제와 고구려의 패망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려시대편을 보면 '집에서는 부처님, 조정에선 공자님'이란 절이 보인다. 고려시대의 민간신앙은 불교였지만 통치이데올로기로는 유교철학이 받아들여졌음을 표현하는 제목으로서 종래의 역사책들이 보이는 '엄숙한' 걸치레를 상당부분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색다른 시도로 주목을 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나 다른 데

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이란 책제목대로 다양한 시각자료들을 본문내용과 연관되게 편집하였다는 점이 그것. 각각의 시각자료에는 상세하고 흥미로운 설명이 있어 본문 내용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그것 자체로도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특별하게는 역사적 그림이 아닌 현재의 그림, 곧 삽화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것 자체의 역사적 의미는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꼽힌다. 기존 역사부도의 복잡한 지도를 보기 쉽게 간편하게 정리한 지도와 도표들도 한국의 역사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진 740여컷을 비롯해 모두 940여컷의 시각자료가 동원돼 있으며, 부록으로는 따로 연표와 찾아보기, 왕조계보 등을 실었다.

다음은 각권의 목차.

제1권 원시시대에서 통일신라까지
원시시대의 사회와 문화; 초기 고대국가의 성립과 사회상; 삼국의 성장과 대외관계; 고대사회의 기본구조와 문화;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 통일신라의 사회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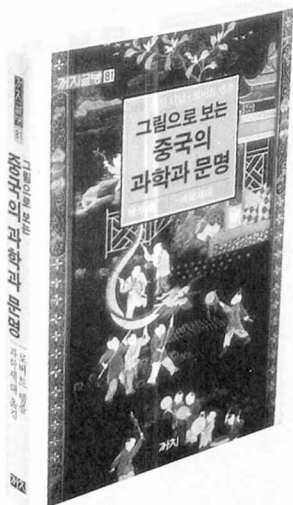
제2권 고려에서 조선후기까지
고려의 건국과 문벌 귀족사회; 무신정권과 여몽전쟁; 조선의 건국과 양반 관료제 사회; 해체되어 가는 중세 봉건사회;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다

제3권 개항에서 해방까지
제국주의의 침입과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 반식민지로의 전락과 국권회복투쟁; 식민지체제의 구축과 3·1운동; 민중수탈의 강화와 민족해방운동의 발전; 식민지배구조의 파탄과 민족의 해방

웅진출판 / A5변형 / 각 250~310면 / 각 6000~7000원

백가지 실례로 보는 중국과학사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



"중국에서 鎡자가 전래되지 않았다면 유럽인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말을 타야 했을 것이고, 중세의 기사들도 위협에 빠진 귀부인을 구출하기 위해 번쩍이는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사도 시대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총포와 화약이 중국에서 전래되지 않았다면 기사들도 갑옷을 뚫고 들어오는 탄환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사도 시대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서양 근대과학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많은 발견과 발명들이 실은 중국인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이뤄진 것들이다. 중국인이 발명

한 배의 키나 나침반이 전래되지 않았다면 유럽인의 '대항해'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식민지 제국의 건설 또한 어려웠을 것이다. 인체 혈액순환의 원리나 뉴턴의 제 1운동법칙조차 중국에서 발견되었다.

조셉 니덤의 잘 알려진 명저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대중용으로 축약한 로버트 템플의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 번역 출간됐다. 원제는 'China, Land of Discovery and Invention' (1986).

중국 전문가가 아닌 일반독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대한 분량의 원저를 요령있게 정리해주고 있는 이 책은 모두 11장 10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농업, 천문학과 지도제작학, 공학, 일상생활과 공업기술, 의학과 건강, 수학, 자기, 물리과학, 수송과 탐험, 음악과 음악, 전쟁 등의 부문에 걸쳐 중국의 과학기술이 서양에 앞선 100가지 실례를 풍부한 도판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한국어판 감수를

맡은 박성래교수(한국외국어대, 과학사)의 표현을 빌면 '100가지 예로 풀어본 니덤의 중국과학사'인 셈이다.

중국과학의 위대한 업적을 강조하다보니 경주 불국사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중국의 인쇄물이라고 단정하는 등의 오류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결코 서양에 뒤지지 않는 동양과학의 전통을 사례별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책이다.
까지 / A5신 / 440면 / 8000원